



SBS '신발벗고 돌싱포맨', JTBC '용감한 솔로 육아-내가 키운다'(왼쪽부터) 등 이혼한 연예인들을 주인공 삼은 예능프로그램들이 잇달아 시청자들을 찾는다.



사진제공 | SBS·JTBC

## 이혼녀·재혼남·싱글맘이 어때서?

'돌싱포맨' 굴곡진 사연 수다로 풀어 '내가 키운다' 나홀로 육아 일상 공개 '돌싱글즈' 이혼한 연예인들 전면에 시대 변화 반영... 시청자들 공감대

"누구나 저마다의 사연은 다 있으니까!"

가수 탁재훈·이상민, 배우 임원희, 개그맨 김준호의 공통점은 바로 '돌싱'(풀어온 싱글)이다. 이들은 13일부터 방송을 시작하는 SBS 새 예능프로그램 '신발 벗고 돌싱포맨'(돌싱포맨)에서 이혼의 아픔을 뒤로하고 당당하게 "내가 먼저 '돌싱'을 탈출할 것 같다"고 외친다. 프로그램은 네 남자가 자신의 집을 찾았을 손님과 이야기하며 이혼, 사업, 실패 등 다양한 아픔 등 굴곡진 인생사를 수다로 풀어낸다. 뿐만 아니라 JTBC '용감한 솔로 육아-

내가 키운다'(내가 키운다), MBN '돌싱글즈' 등도 이혼한 연예인들을 전면에 내세운다. 그동안 이혼과 재혼 등 예능프로그램에서 좀처럼 다루지 않았던 소재들을 삼으면서 방송가의 '금기'가 깨지는 분위기다.

### ● '조심스럽지만 용기 냈다'

'돌싱포맨'은 '미운 우리 새끼'(미우새)의 외전 프로그램이다. 출연자들이 '미우새'에서 이혼의 아픔을 딛고 나름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과정이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독립'까지 하게 됐다. 탁재훈은 이날 오후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제작발표회에서 "같은 공감대를 가진 우리끼리 자유롭게 대화하는 모습이 전에 보지 못한 신선한 재미를 안길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돌싱포맨'이 토크쇼 포맷으로 이혼을

비교적 가볍게 다뤘다면, '내가 키운다'는 배우 채림·조은희·김현숙, 방송인 김나영이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는 일상을 들여다보면서 현실감을 더했다.

이들 출연자들 모두 아이를 공개해야 하는 점 때문에 망설였지만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와 공감을 주고 싶어서" 용기를 냈다고 입을 모았다. 저마다 개성 있는 육아 일상을 그리면서 프로그램은 9일 첫 방송 이후 곧바로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았다.

11일부터 방송을 시작한 '돌싱글즈'도 배우 배동성의 딸 배수진 등 남녀 각각 4명의 '돌싱'들의 '쌈'을 그리고 있다.

### ● 시대의 변화 반영한 결과

이 같은 흐름은 최근 사회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담은 결과이기도 하다. 6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4월 인구동향조

사' 보고서에 따르면, 4월에만 9038건의 이혼이 발생했다. 연간으로는 10만 6500여 건에 달한다. 이혼이 더 이상 '낯설고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재근 대중문화 평론가는 "시대가 변하면서 해당 소재에 대해 공감하는 대중이 많아졌기 때문에 방송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혼 등을 다루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자연스럽게 1인 가구, 한부모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도 방송으로 소개되고 있다. 하 평론가는 "이를 통해 일각에 존재하는 편견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내가 키운다'의 김나영 또한 "요즘 혼자 육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도 전형적인 가정 형태만이 '진짜 가족인 것처럼 말하는 분위기를 깨고 싶었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송강호·전도연·이병헌 레드카펫 선다 '비상선언', 칸영화제 비경쟁부문서 첫 공개



송강호



전도연



이병헌

송강호·전도연·이병헌. 한국영화를 대표하며 세계적 명성을 쌓은 배우들이다. 이들이 의기투합한 무대가 해외에서 첫 나라를 편다.

세 사람이 주연한 영화 '비상선언'(감독 한정림·제작 MAGNUM 9,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씨네주이) 7일(이하 한국시간) 막을 연 제74회 칸 국제영화제 비경쟁부문에서 선보인다. 15일 오후 3시 30분 프랑스 남부 휴양도시 칸의 영화제 60주년 기념관에서 열리는 언론시사를 통해 첫 공개된다. 또 17일 오전 5시 15분 칸 국제영화제 메인 상영관인 튀미에르 대극장에서 공식 상영된다. 송강호·이병헌과 함께 출연한 임시완도 상영에 앞서 레드카펫에 올라 해외 관객에게 인사한다.

항공 재난영화를 표방하는 '비상선언'은 여객기가 테러의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이에 맞서는 형사와 장관, 승객 등이 겪는 이야기를 그렸다. 송강호·전도연·이병헌과 임시완·김남길·김소진 등 스타급 연기자들이 대거 참여해 기대를 모았다.

특히 칸 국제영화제 티에리 프레모 집행위원장은 영화를 비경쟁부문 상영작으로 초청하며 "완벽한 장르영화"라는 호평을 보냈다. 이에 화답하듯 송강호는 이번 영화제 경쟁부문 심사위원으로, 이병헌은 18일 폐막식 시상자로 각각 나선다. 앞서 2007년 '밀양'으로 칸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을 거머쥔 전도연도 2014년 경쟁부문 심사위원으로 활약했다.

이처럼 칸 국제영화제와 배우들이 맺어온 인연은 이들의 세계적 위상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들이 주연한 '비상선언'이 영화제가 축제의 절정에 달할 주말에 상영된다는 점도 그 방증으로 받아들여진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 스타 '다큐 영화'에 향기를 담는다... 첫 주자는 신세경

김종관 감독 '어나더 레코드' 제작가감없는 일상 기록처럼 영상화

스타들이 자신들의 일상을 솔직담백하게 담아내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선보인다. 다채로운 감성을 스크린에 펼쳐온 영화 연출자들과 손잡고 이전과는 다른 형식과 내용으로 내면을 드러낼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첫 주자는 연기자 신세경이다. 영화 '조제' 등으로 깊고 따스한 감성을 표현해온 김종관 감독과 함께 다큐멘터리 영화 '어나더 레코드'를 올해 하반기 공개한다. 영화 투자배급사 쇼박스과 KT 계열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KT Seezn(시즈)이 제작하는 '시네마틱 리얼 다큐' 시리즈의 첫 작품이다.

신세경은 쉽게 드러낼 수 없었던 자신의 일상을 마치 기록해가듯 김종관 감독과 함께 카메라에 담아갈 예정이다. 조만간 촬영을 시작하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스타로서 특별하지만, 자연인으로서 평범한 일상의 다양한 공간과 생각을 펼쳐낸다.

앞서 신세경은 자신의 반려견 '신진국 씨'에서 계정명을 따온 'sjkuksee'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팬들과 소통해왔다. 하지만 반려견을 비롯해 맛집 소개, 요리, 여행 등 특정 분야에 관한 관심을 드러낸 내용이 많았다는 점에서 이번 '어나더 스토리'는 온전히 그만의 내밀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조제' '더 테이블', '페르소나' 등 영화를 통해 따뜻한 시선과 섬세한 연출력을 드러내 온 김종관 감독이 자신만의 시선으로 신세경의 내면과 이면의 모습을

담아낼 전망이다.

사실 그동안 스타들의 자연스러운 일상을 소개한 다큐멘터리는 적지 않았다. 하지만 대부분 휴먼 다큐멘터리라는 형식 안에서 화려한 시절을 지나온 연예인들이 과거의 명성을 돌아보거나 어려움에 처한 현실 등을 보여주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시네마틱 리얼 다큐'는 '리얼 다큐'라는 콘셉트처럼 스타들의 가감 없는 일상을 사적인 기록처럼 담아낸다는 점에서 일정한 차별점을 지닐 것이라는 기대를 모은다.

쇼박스와 KT Seezn은 "'시네마틱 리얼 다큐'라는 새로운 장르로 차별화한 재미를 선사하겠다"면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스타들의 새로운 모습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연기자 신세경(오른쪽)이 자신의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어나더 레코드'를 내놓는다. 영화 '조제' 등을 만든 김종관 감독(왼쪽)이 연출한다.

사진제공 | 시즈

## 매주 빌보드 신기록 BTS '버터', 올해 최고 히트곡 보인다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빌보드에서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서 또다시 1위를 차지하며 매주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

13일(이하 한국시간) 빌보드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5월21일 발표한 두 번째 영어 싱글 '버터'(Butter)로 '핫100'(7월17일자)에서 7주 연속 1위에 올랐다. 이로써 올해 초 8주 연속 1위를 차지한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드라이버스 라이선스'(drivers license)를 바짝 뒤쫓으며 2021년 최고 히트곡 자리를 넘보고 있다. 이와 함께 9일 발표할 세 번째 영어 곡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를 24일자 차트에 진입시킬 것으로 예측돼 또 하나의 기록을 쓸 것으로 보인다.

'버터'는 5월21일 발매 첫 주 '핫100' 정상에 올랐다. 차트 진입 동시에 1위에 오른 '핫



방탄소년단

13'으로 역대 54곡 목록에 들었다. 이 가운데 7주 연속 정상을 차지한 노래는 '버터'를 포함해 8곡뿐이다. 그룹으로서는 1995~1996년 16주간 1위를 차지한 미국의 머라이어 캐리와 보이즈 투 멘의 '원 스위트 데이'(One Sweet Day)를 잇는 기록이다.

'버터'가 이처럼 장기 흥행을 이어간 데에는 미국 라디오 방송횟수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MRC 데이터에 따르면 '버터'는

2일부터 8일까지 지난주 대비 6% 방송횟수가 증가해 2910만여 청취자에게 노출됐다. '라디오 송즈' 차트도 23위에서 21위로 두 계단 상승했다.

팝 장르의 상위 40개곡을 대상으로 미국 160여개 주요 라디오 방송국 주간 방송횟수를 집계하는 '팝 에어플레이' 차트에서도 10위에 올랐다. 지난해 5위에 오른 '다이너마이트'를 잇는 기록이다.

또 추가 리믹스나 실물 음반을 발매하지 않았음에도 압도적인 음원 판매량을 기록했다. 미국 판매량은 총 10만8800건으로, 전주 대비 29% 하락했지만 경쟁곡들을 따돌렸다.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도 7주 연속 1위에 올랐다. 스트리밍 횟수도 전주보다 1% 감소한 1080만회였지만, '스트리밍 송즈' 차트 순위는 오히려 31위에서 26위로 5계단 상승했다.

이제 전 세계의 관심은 이들의 세 번째 영

8주연속 1위 '드라이버스 라이선스' 추격세 번째 영어곡 '퍼미션 투 댄스'도 기대

어곡 '퍼미션 투 댄스'의 기록과 빌보드 차트로 향한다. '버터' 싱글 CD에 수록된 '퍼미션 투 댄스'는 24일자 빌보드 차트 집계에 반영돼 순위가 20일 공개된다. 영국 싱어송라이터 에드 시러가 작사·작곡에 참여한 '퍼미션 투 댄스'는 공개 첫날 스포티파이에서 733만9385회 스트리밍되며 '글로벌 톱 200' 차트 2위에 진입했다. 뮤직비디오도 공개 52시간 만에 유튜브 누적 조회수 1억부를 돌파했다. 여기에 방탄소년단의 세계적 입지와 영향력, '다이너마이트'와 '버터' 등 '핫100' 연속 1위, 탄탄한 팬덤과 높은 판매량 등도 힘을 보태며 '핫100' 1위 진입이 유력 시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13일 공식 SNS를 통해 "정말 믿기지 않는 7주 연속 1위 진입으로 감사드립니다"는 소감과 함께 #바통터치 #PermissiontoDance 등 해시태그를 올리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 연예뉴스 HOT 3

트레저 도영·서인영 코로나 확진 판정



서인영

아이돌 그룹 트레저 멤버 도영과 여성그룹 주얼리 출신 가수 서인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두 사람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는 13일 각각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즉시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추가 동선을 확인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트레저는 도영을 제외하고 다른 멤버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추가 확진자는 없지만, 트레저 역시 자가격리 상태를 유지한다.

선, 아이스버킷 캠페인 모금 5700만원 기부



선

가수 선이 '아이스버킷 챌린지 린' 캠페인으로 모금한 5700만원을 국내 최초 루게릭요양센터 건립을 위해 기부했다. 승일희망재단은 13일 "재단의 공동대표인 선이 주최한 '2021 미라클 365-버추얼 아이스버킷 챌린지 린' 모금 캠페인을 9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총 1140명이 참가한 행사는 루게릭병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선은 "코로나19 확산 여파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노력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노는 언니', 최근 숨진 서보라미 분량 방송 연기

E채널 '노는 언니' 제작진이 최근 사망한 서보라미 좌식 크로스컨트리 스키 국가대표의 출연 분량이 담긴 방송을 연기하기로 했다. 제작진은 13일 "유가족과 상의 끝에 방송을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날 방송은 결방한다"고 밝혔다. 서보라미는 9일 35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사인은 심장마비이며, 올 4월에 결혼해 임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는 언니'에는 게스트로 출연해 촬영을 최근 마쳤다. 서보라미는 2008년 크로스컨트리 스키에 입문해 2010년 밴쿠버 패럴림픽부터 2018년 평창 패럴림픽까지 3회 연속 출전했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